

‘대북 송금’ 특검서 무죄 밝혀졌는데...

박지원 동정론 ‘술술’

통합민주당의 공천대상에서 배제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대중(DJ)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4·9총선에서 이들이 출사표를 던진 목표와 무안·신안에서는 ‘사면·복권론’에 대해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지나치게 사법적인 잣대만을 들이밀고 있다”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지층의 결속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10일 북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실장의 선거사무실이 차려진 상동 동방빌딩 2층에는 최근 들어 지지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박 전 실장의 공천배제 소식을 듣고 사무실을 찾은 이들은 “대북송금특검과 관련, 박 전 실장이 사면복권을 받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공심위가 공천개혁이라는 명분과 편협한 법률적 잣대를 기준 삼아 박 전 실장을 내쳤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는 박 전 실장이 공천만 받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 같아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심위가 이렇게 심하게 나온다면 앞으로는 친·인척 주조자를 옮겨서라도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북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한 모씨도 이날 “(민주당과 통합민주당이) 이라하고 합당을 한 거냐”며 “박 전 실장은 지역구를 떠나 DJ의 분신이다. 그를 내치는 것은 DJ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DJ를 인위적으로 축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씨도 스스로 “민중통일을 위해서



지만, 검찰이 추적해서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 무죄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바 있다.

김 의원의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서도 무리한 판단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다.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정치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공심위가 1년도 채 안돼 또 다시 같은 사안을 문제삼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민주당과 통합민주당의 통합을 주도한 DJ를 사실상 배신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김 의원은 “친구인 김성환씨가 허위 진술을 해서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이분도 4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작년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 선거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요즘 들어 ‘의자를 끼지 말라. 무안·신안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격려전화가 부쩍 많이 걸려온다”며 “사실상 당으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셈이지만, 지역민들의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역민들, 공심위 사법적 잣대 지나쳐

“김홍업씨 공천 배제도 DJ 배신 행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정치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공심위가 1년도 채 안돼 또 다시 같은 사안을 문제삼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민주당과 통합민주당의 통합을 주도한 DJ를 사실상 배신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김 의원은 “친구인 김성환씨가 허위 진술을 해서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이분도 4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작년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 선거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요즘 들어 ‘의자를 끼지 말라. 무안·신안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격려전화 부쩍 많이 걸려온다”며 “사실상 당으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셈이지만, 지역민들의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나라 공천 후유증 몸살

“당 오만해져...이게 무슨 개혁공천이냐”

탈락자들 최고위 찾아 독설·재심 촉구

한나라당이 4·9총선 공천을 속속 확정하면서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부 당원이 난동을 부리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당에 독설을 퍼붓는 등 공천 후유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 당 대표실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공천에서 탈락한 이원복(인천 남동), 배일도(비례대표), 고조흥(경기 포천·연천), 고희선(경기 화성)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이원복 의원은 회의 전 기자들을 향해 “찬바람 10년 맞고 야당만 사람은 떨어뜨리고, 입만 열면 한나라당 육한 사람은 (공천)되고 이게 무슨 개혁공천이냐”며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두고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조흥 의원은 공심위 간사로 회의장에 입장하던 정종복 의원에 대해 재심요청서를 건네면서 “왜 고씨만 떨어뜨리고 그래요”라며 “빠있는 능을 던졌다. 고조흥·고진화·고희선 의원 등 고씨 성을 가진 지역구 현역의원 3명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당 내에서

‘고씨(高氏) 괴담’이란 농담까지 나온 것을 비꼰 말이었다.

회의가 열리고 얼마 안되어서는 갑자기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렸다. 고진화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갑 출신 당원 문모씨 등 2명이 “가계공천 이상득은 사퇴하라”, “허수아비 공천심사위원회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곧바로 당직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들은 대표실 앞 복도에서 성명을 낭독하고 영등포갑 공천 즉각 재심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의 시작 20분이 지난 때까지 공천 실무 총책임자 이방호 사무총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공천 결과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고진화 의원은 불교방송 ‘아침 자넌’에 출연, “지금 공심위 외에 계파간 물밑 협상을 하는 창구가 없어 그런 것들이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정치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 공천 과정”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한, 오늘까지 비례대표 공천신청 접수

한나라당이 10일 4·9총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여의도 당사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신청에는 이날 오전에만 4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당 관계자는 “오늘은 신청 창구가 조금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유력 인사들이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례대표 심사는 현재의 공심위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선희 전 인수위 부대변인을 비롯해 김금래 전 당선인 비서실 여성 팀장,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남상해 하림 각 사장, 장애인 치료사 서정경씨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박근혜 전 대표 공보특별비서관 이정현 전 부대변인, 입법정책연구회 이재호 부회장 등도 이날 중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징성이 큰 비례대표 1번으로는 애초 이경숙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거론됐으나, 영여 공교육 과정에서 비판여론이 들끓고 본인이 “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찬모 전 포항공단 총장과 배은희 리젠 바이오텍 대표, 이춘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대통령 측근 및 박근혜 전 대표측 안병훈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정현 전 특보 등도 불명예에 오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4·9 총선 현장

김동철, 지역민 대상 공약접수 창구 개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10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 접수 창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

김 후보는 이날 “총선 시민공약 접수 창구는 광주 광산 지역 및 호남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화장품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0일 아모레퍼시픽 신안동점 등을 방문, 화장품 시장과 만나 한·미 FTA에 따른 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강 의원은 이날 “한·미 FTA로 브랜드 인지도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외국 화장품 업체가 몰려오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지병문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10일 진월동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일일 이 약속을 나누는 등 표심잡기에 주력.

지 의원은 이날 “서민들과 밀착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꼼꼼하게 지역 현안을 챙기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지지를 호소.

양형일 “지역민 삶의 질 높이는데 최선”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10일 산수동과 계림동 주민자치센터 및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아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표심잡이를 본격화.

양 의원은 이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약을 통해 낙후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다짐.

강운태 “노인 복지 시스템 강화할 것”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10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사업 전진대회’에 참석, 노인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시적인 시혜성 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고용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피력.

조영택 “지역 실정 맞는 노인정책 필요”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0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2008 노인일자리 전진대회’에 참석,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

조 후보는 이날 “오는 2010년 광주 지역 고령화 비율이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정책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입성, 노인복지예산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

서정성 “남구를 친환경도시로 개발” 공약



○서정성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0일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남구를 친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지역이 아닌 남구 전체를 환경생태도시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라며 “환경생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첨단기술과 문화·관광산업을 연계한 조성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

유종필 “장애인 내비게이션 보급해야”



○유종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0일 장애인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장애인 내비게이션’을 보급하자고 제안.

유 후보는 “광주지역 5만여명의 장애인들은 외출할 때마다 목적이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시설이 없는 곳에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장애인 시설, 교통수단 등이 담긴 전용 내비게이션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박주선 “포 문화전당 차질없이 추진”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0일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이룬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의 최대 현안인 문화전당 조성사업과 지원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용산동 도시개발, 명문고 유치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

김동신, OB맥주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



○김동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10일 OB맥주 광주 공장장을 찾아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김 후보는 이날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수시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며 지지를 당부.

이용섭 “풍영정전 수질오염대책 절실”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10일 광산새마을부녀회원들과 함께 풍영정전 정화활동을 벌이는 등 주민과 접촉 기회를 늘리면서 민심잡기에 분주.

이 후보는 이날 “광산 지역을 가로지르는 풍영정전의 경우 갈수기 수량 확보 방안을 비롯, 수질오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토지공사·광주시 등과 협의,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

정기남 “정책비전과 5대 공약 발표”



○정기남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0일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새정치를 펼치겠다고 정책비전과 5대 공약을 발표.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합문화공간 및 멀티미디어 도서관 조성 ▲중저가형 실버타운 건설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30% 할당제 ▲광주 노·사·정 합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경제 안정화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등을 약속.

김재균 “기업유치 통해 일자리 창출”



○김재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0일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복지 수단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지를 당부.

정용화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등 공약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0일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을 제시.

정 후보는 “고령화시대 노인 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이라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을 비롯,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김경진, 복지관 찾아 배식 봉사활동



○김경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무소속)는 10일 각화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무료 배식활동을 벌이고 대화를 나누는 등 민심잡기를 본격화.

김 후보는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센터를 유치,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룡 “풍암동 중앙공원, 테마파크로 조성”



○김영룡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0일 “풍암동 중앙공원 일대를 친환경적인 테마파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김 후보는 “풍암동 중앙공원은 이용 시민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휴식공간”이라며 “편안한 휴식공간이 아닌 자연스런 골목이 살아있는 광주지역 대표적 도심 공원으로 바꿔

내겠다”는 의견을 피력.

심재민 “공무원 공명선거 실현 결의 공감”



○심재민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10일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공명선거 실현 결의대회와 관련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

심 후보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실현은 선거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

김승남 “복지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필요”



○김승남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0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보조금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절단지역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 주민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

김영록, 경로당 순회 보건·복지 의견 청취



○김영록 통합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는 10일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 보건·복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표심잡이에 분주.

김 후보는 이날 해남을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어 농어촌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관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효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

오형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앞장설 것”



○오형근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10일 ‘매니 페스토(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 정책선거’에 앞장설겠다는 입장을 발표.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제 실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펼치겠다”고 설명.

이병화, 쌍촌동 복지관 ‘점심급식 봉사활동’



○이병화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0일 쌍촌동 주공복지관을 방문, 배우자와 함께 ‘점심급식 봉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

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광주 시 행정부시장 재직 경험을 살려 더욱 많은 복지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설겠다”고 다짐.

곽동진, 마을회관 찾아 주민들과 대화



○곽동진 통합민주당 장흥·강진·영암군 예비후보는 10일 장흥군 안양면 마을회관 등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표심잡기에 총력.

곽 후보는 “10여년동안 보좌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 지역민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

이윤정 “호남 여성 정치인 전략공천해야”



○이윤정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0일 호남지역 여성 후보와 관련, “통합민주당은 여성 정치인을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주장.

이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합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여성후보 21명 중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5명에 불과하고 3명은 1차 심사에서 떨어졌다”면서 “전북지역 현역의원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는 1명뿐인 만큼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수렴, 이제라도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역설.

서갑원, 국방부장관 감사패 받아



○서갑원 의원(순천시)은 최근 군급식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의 감사패를 수상.

서 의원은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수입육류를 국내육우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장병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군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 기자 dok2000@kwangju.co.kr